



팜파스 저학년 책 놀이터 01

안녕? 나는 멋진 플랑크톤이야!

가장 작은 존재가 해내는 위대한 일,
자연에서 배우는 생각 동화

박하연 지음, 박선하 그림
팜파스 펴냄 | 93쪽 | 값 11,000원 | 초등 저학년

책소개

“조그맣다고 알보지 마!”

이 책은 작고 작은 생명체 플랑크톤을 통해 물속 생태계를 알아보고,
작은 존재들이 모여 해내는 위대한 일을 살펴봅니다.
그럼으로써 어린이 친구들에게 작은 존재를 허투루 보지 않고 멋진 역할이 있음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독후활동 주제망

플랑크톤이 무엇일까요?

물속 생태계를 알아보아요!

가장 조그마한 존재가 해내는 위대한 일!

● 책 읽기전에 해보세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앞표지와 차례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1. 표지에서 다른점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2. 다음 중 《안녕? 나는 멋진 ○○○○이야!》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프랑크

플라스틱

플랑크톤

프리미어

● 책을 읽으며 살펴보세요!

플랑크톤은 무엇일까요?

플랑크톤은 물속을 떠다니며 살아가는 모든 생물을 부르는 말이에요. 스스로 헤엄칠 능력이 없어 물에 둥둥 떠다니지요. 대부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생물이예요.

플랑크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식물처럼 바다에서 사는 플랑크톤도 광합성을 해요. 햇빛만 있으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지요. 그런 플랑크톤을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한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물속 생태계에서 '생산자' 역할을 한답니다. 많은 물속 생물들에게 영양분이 되어 주지요.

식물성 플랑크톤으로는 남세균, 규조류, 녹조류, 와편 모조류, 은편 모조류가 있어요.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바로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플랑크톤도 있답니다. 이런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해요.

동물성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박테리아, 혹은 더 작은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1차 소비자'라고도 불러요.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잡아먹어서 양분을 얻기 때문이지요. 동물성 플랑크톤 역시 더 큰 물속 생물들에게 먹이가 되어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생물들을 '2차 소비자'라고 부른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으로는 하모류, 짚신벌레, 나팔벌레, 종벌레, 크릴 등이 있어요.

1. 플랑크톤은 어떤 생물을 말하나요? 다음중 플랑크톤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 ① 물에 떠다닌다
- ② 스스로 헤엄칠 수 있다.
- ③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 ④ 식물성, 동물성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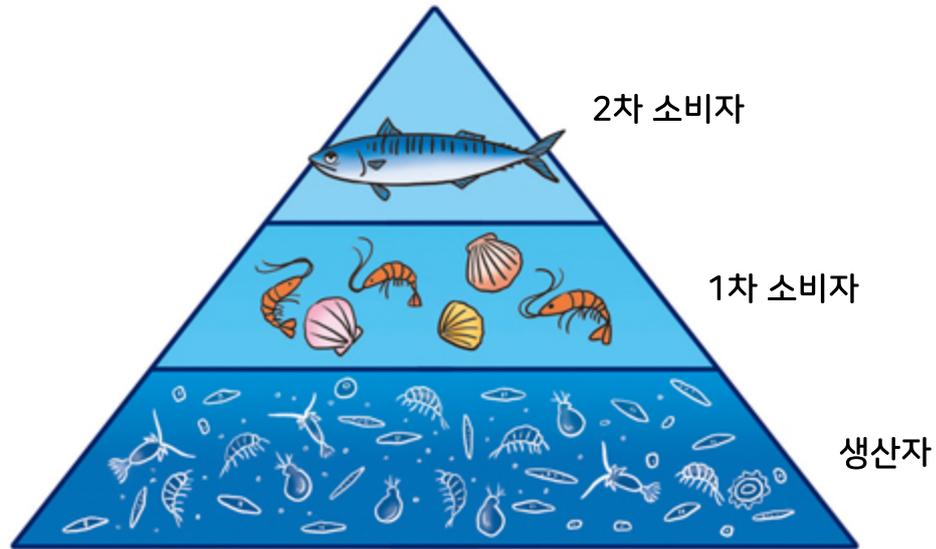
2. 나는 누구일까요? 물속에서 햇빛을 받아서 살 수 있어요.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물속에서 식물 역할을 한답니다.

()

3. 동물성 플랑크톤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 (), ()

2. 다음은 '물속 먹이사슬을 나타낸 피라미드'예요. 플랑크톤은 먹이 피라미드에서 어느 층에 들어가 있을까요?



● 물속 생태계를 알아보아요!



1. 다솜이는 물속 생물 '플랑크톤'을 말할 때 왜 얼굴이 빨개졌을까요?

Blank rounded rectangular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question 1.

2. 다솜이처럼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나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Blank rounded rectangular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question 2.

“그리고 플랑크톤이 우리를 숨 쉬게 해 줘.”

“잉? 숨 쉬게 해 준다니?”

“플랑크톤이 우리 세상에 산소를 많이 만들어 주거든.”

“산소는 나무가 만드는 거 아니야?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하잖아.”

영우의 말에 반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없애고 산소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쉴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일을 플랑크톤도 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을까요?

...

“맞아. 플랑크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 그리고 물고기 밥이기도 해. 그래도 플랑크톤이 없으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도 살 수 없어. 왜냐면, 플랑크톤은.” 다숨이는 칠판에 적힌 바다 먹이 사슬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플랑크톤’이 적혀 있었지요.

“바다의 환경을 지탱해 주거든. 플랑크톤이 잘 살 수 없으면, 모두 잘 살 수 없어. 왜냐면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물고기들도 굶어 죽게 되니까. 바다의 생태계도 와르르 무너진다고. 플랑크톤이야말로.”

3. 플랑크톤이 하는 일 중 아닌 것을 고르세요.

① 지구의 산소를 만들어 준다.

②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없애 준다.

③ 바다의 환경을 지탱해준다.

④ 물속 먹이 사슬을 망가뜨린다.

정답

책 읽기 전에 해보세요

- (1) 그림체크
- (2) 3번

플랑크톤은 무엇일까요?

- (1) 2번
- (2) 식물성 플랑크톤
- (3) 하모류, 짚신벌레, 나팔벌레, 종벌레, 크릴 중 3가지
- (4) 그림그리기

물속 생태계를 알아보아요!

- (1) 바다 생물 3가지를 자유로이 써보세요.
- (2) 맨아래층

가장 조그마한 존재가 해내는 위대한 일!

- (1) 목소리가 작고 소극적인 다슴이는 남들에게 주목받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부끄럽고 왠지 자신감이 없어져 목소리가 떨려요.
- (2) 다슴이 같은 경험을 했을 때의 기분을 적어보세요!
- (3) 4번